

ECO 필수교리, 신앙고백

I.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안에서의 신앙고백

가장 극명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선포는 그의 말씀, 곧 성육신과 쓰여진 글에 찾을 수 있다. 성자는 영원전부터 그의 말씀인 성부로 나오고, 성부의 완전한 본성의 나타남이며, 말씀의 성육신하심으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고귀함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쓰여진 말씀은 그 고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믿음과 삶을 위한 은혜로운 가르침이 주어진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무류(신앙과 도덕적인 문제가 전혀없음)함과 성자의 성육신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적인 자기현시(스스로 나타내심)를 인정하고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동정녀 마리아를 덮으셨던 성령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셨고, 말씀이 쓰여지게 하셨고, 말씀을 지키신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증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시사 올바로 말씀과 그리스도를 받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님이신것을 고백하지만 이 자유함은 항상 그리고 첫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게 하는 목적에 있다. 성령께서는 그가 감동을 주신 말씀에 절대로 양심이 어긋나도록 도달하게 하시지 않으신다. 성육신된 말씀의 나타남은 쓰여진 말씀의 권위를 최소화하지도 아니하고, 자격을 주지도 아니하며, 옆으로 밀어놓지도 아니한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말씀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매여있다고 고백한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장로교인들과 개혁주의 공동체와 함께 두번째 권위서인 신앙고백서가 신실한 하나님말씀의 해석임을 믿는다.

II. 삼위일체와 성육신: 두가지 중심적인 기독교의 신비 (미스테리)

A.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은 첫번째 크리스찬 믿음의 신비이다. **모든곳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오직 한 분, 한 본질의 세 분이신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을 예배한다.** 하나님은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무감정성,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잠재되어있는 것도 없고, 그 안에 더 자라나는 것도 없기때문에 자신으로 부터 나눌 수 없고, 더해질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선하심과, 모든 진리와 아름다움, 모든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다. 그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재하시다. 삼위의 하나님은 동질이시며, 함께 영원하고, 동등하기 때문에 세명의 신이 아니고 세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 또한 아니다. 세 인격이 하나의 하나님인 것이다. 성자는 성부로 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낳아지고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로 부터 계속 나아온다. 세 분 모두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은혜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지속되는 그의 창조는 계속해서 그의 은혜의 통치권과 섭리안에서 나타나지고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유지하신다. 그는 거룩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기반이 되시며, 그의 영광은 너무 위대하여 그를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그는 세상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드셨고,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그를 알수있고 관계를 가질수 있는 독특한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안에서 안전하게 그에게 갈수가 없다. 그렇기에 그가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B. 성육신

성육신은 두번째 크리스찬 믿음의 신비이다.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임을 모든 크리스찬들이 확신한다. 그의 신성에 대해서는 그가 아들되시고, 삼위일체의 두번째이신 성자이시며, 성부와 동질 (동체) 이시다. 그의 인성에 대해서는 그는 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인간과 같으시고, 인간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육신과 영이 있으시다. 그의 신성에 대해서는, 그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성부로 부터 낳아지고, 그의 인성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그의 신성에 대해서는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을 가득채웠고, 그의 신성으로는 그의 영광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특별히 그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올려졌을때 나타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신비로운 양성(두 가지 본성: 신성과 인성)이 그에게 있음을 고백한다. 그의 양성이 겹치거나 흐려져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스도의 양성은 충분히 차이가 있고 성육신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주장한다. 그저 그가 한때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으로 부터 보내지기만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가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된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기쁘게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들의 신성에는 절대로 손상되거나 한계가 없고, 은혜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심으로 인해 변하신 것이 없으며 그의 인성으로 그의 지속적인 신성이 절대로 약화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으나 기쁨과 자신감으로 확신한다.

이 성육신의 신비는 계속되고 있다. **아버지로 부터 보내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한 육신이 지금 아버지께로 승천하였고 아직까지도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계신다.** 그의 육신이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다. 언젠가 그의 얼굴을 볼 것 이라는 약속은 나사렛 예수의 얼굴을 언젠가 볼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고, 갈보리에서 죽었으며 엠마오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승천하셨고 언젠가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때 그의 제자들에게 위로자없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아버지께 성령을 위로자 그리고 증보자로 보내주시실것을 간구하셨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수 있다.** 성령님께서서는 오순절때 모인 제자들에게 오신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불을 지피시고, 우리가 증거함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미션에

함께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실것이다.

III. 개혁전통의 필수사항

A. 그리스도안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셨고,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또한 매우 좋다고 하셨다. **현재 세상의 혼란속에 있는 우리와 모든 것은 고통과 악에 속해있는데 이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악의 반항으로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땅의 흙과 그의 생기로 만드셨다. 타락이후 우리의 본성은 피조물들을 남용하고 착취하며 선보다는 악을 더 추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말함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사회적관계가 그를 섬기고 순종할수 있도록 만드셨다. 타락이후 우리의 본성은 독재적이고 서로에게 부당한 관계를 맺음으로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전락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와 관계를 맺을수 있게 창조하셨고, 그의 율법은 우리 마음에 쓰여져 우리가 그를 사랑으로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하셨다. 타락이후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대신에 우리가 만들어 낸 우상을 섬기는 성향이 생겼다.

죄의 결과로 인해 사람의 삶이 영원한 죽음으로 오염되었다. 인간의 삶 중에서 죄가 닿지않는 부분은 없다. 우리의 갈망은 더 이상 선함으로 인도하는 신뢰감은 없어지고, 자연스러웠던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께 답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죄로 인해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죽었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살릴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구원이란 없다. 우리의 오직 하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으로인해 , 우리는 이 소망을 말씀을 통하여 찾는다.

이 은혜는 우리가 죄로 돌아 설지라도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지만 영원하신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십자가에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통하여 자신을 바치심으로 우리가 저야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질수없는 저주의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지셨다. 모든 사람들은 죄에 빠져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로 부터 완전히 용서함을 받고,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은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는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로 들어오게되었고, 아버지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입양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양될수 있고, 그 길만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믿는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수있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하고 완벽하게 나타나지는 이유는 그 만이 진리이고, 그 만이 아버지를 보았으며, 오직 그 만이 아버지를 알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온 떡이고 생명수이며,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운행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이 모든 특권은 하나님의 사랑이 비인간적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친밀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각각 그들의 이름을 불러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용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변화와 효과적인 사랑으로 그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B. 구원의 선택과 봉사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크리스찬을 부르시는 것은 그저 각자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의지를 타락으로 잃어버렸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은혜 안에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은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우리 개개인은 선택된 자들의 머리로 영원히 지정된 우리의 형제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 그는 우리의 뼈중의 뼈요, 살중에 살이며, 우리의 하늘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인성을 함께 나누시사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우리의 의지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에게로 돌리시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밝히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타락에서 잃었던 자유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거할 수 없고 그의 영광을 볼 수조차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속의 소멸하고 정제하는 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완벽한 인성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완벽한 신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 받은 은혜를 다른이에게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의 공동체를 그의 구원의 도구로 모으셨다. **그의 새롭게 하심과 성화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룩함을 가능케 하신다. 그럼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하심을 증거한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의 공동체로 세우고 준비시키시기 위해 모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셨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위해 현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에게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섬긴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모든이들을 회개의 자리로 불러 복음을 믿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을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화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며, 갇힌자들을 찾아가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한다.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가져올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에서 살게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것이라는 확고한 소망인것이다.

C. 교회안에서의 언약의 삶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선택되었다. 하나님께서 굳게약속하신 이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하고, 서로를 하나가 되게한다. 벌써 창조안에 우리는 서로서로 관계를 맺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찾을수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라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 우리의 믿음이 이 언약의 공동체안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요구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모든이들이 하나가 되게해달라고 기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게해달라고 기도하고 일해야한다.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기에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크리스찬 형제 자매로 묶여있다.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국가, 인종, 성, 민족, 언어의 다른점으로 인한 적대감은 무너져야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은 그의 풍성하고 다양한 지혜가 풍성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교회는 벌써 종말론적인 현실안에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그들의 귀한것을 하나님의 도시에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다.

교회의 언약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선포와 성례, 그리고 서로간의 훈련의 연습으로 통해서 베풀어진다. 첫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때에 그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된다. 두번째, 세례와 성찬은 중요한 의미로 연결된 사인으로써 우리를 예수님의 약속에 인을친다. 유아세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안에 확신을 고백함으로 스스로 할수없는 아기이지만 언약공동체의 한 일원, 곧 하나님의 자녀로써 은혜로 씻겨짐바 되고 성령으로 인쳐진다. 성인세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피조물로 만드셨음을 확신하는 고백을 한다. 성찬식때 떡을떼고 하나의 잔을 나눌때 성령께서 우리를 승천하신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로 만드셔서 그의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힘을 주며,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고백한다. 세번째, 교회 공동체는 훈련함으로 서로를 새 생명의 길로 갈수있게끔 돕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며,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눈다.

D. 모든 삶 가운데 신실한 직분

교회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3대 사역(선지자, 제사장, 왕)을 나타내며, 이 사역은 교회의 직분인 목회자, 집사, 장로안에서 나타난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교회의 사역에 부름받았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교회와 세상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언적 삶,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과 그 복음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되심에 동참하여 증보자로서 세상의 고통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 증보함으로 함께 나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에 일치시키기위해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3대 사역에 동참할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주셨다.

예수님께서 주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치신다.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부분에도 없다. 어떠한 사랑이라도 스스로 의롭게하는 것은 거부한다. 어떤 애정이든 갈망이든 하나님의 주권아래 내려놓는다. 인간의 영혼이 타락에의해 영향을 받지않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접근할수있다는 것을 거부한다. 영혼과 육신 모두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겨야하고 정화되어야 한다. 삶의 뜻이 믿음과는 별개라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장로교 전통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독교교육, 그리고 크리스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레벨의 공부와 훈련을 연구해왔다.

E.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삶

거룩함의 발전은 성화과정으로써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루시는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답이다. 첫번째 감사의 답은 기도이다. 이 기도는 매일 훈련되어지는 기도이며, 개인 또는 함께 함으로 크리스찬의 삶이 나타나진다. 기도삶은 하나님의 본성과 역사를 찬양하고, 진정한 죄의 고백, 그리고 다른이들의 필요를 증보하는 것이다. **우리가 꾸준한 자기성찰과 고백의 훈련을 연습함으로 우리는 십계명으로 인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게 된다...

1. 하나님만 예배하라. 모든 삶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살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과도한 사랑이 우리를 다른 도움에 의지하지않게 하라.
2.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거나 상상하는 일은 삼가하라. 올바른 예배는 우리의 창조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선포와 신실한 성례집행이다.
3. 신성모독, 불경함과 불결한 말과 생각을 없애라.
4. 안식일을 예배와 휴식으로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에 신실하게 힘쓰라.
5.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자(권위, 리더)를 존중하고 교회공동체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라.
6. 성냄, 분개, 냉담함, 폭력의 영을 없애고 선함과 착함과 평강과, 사랑을 심으라.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에게서 찾고 존중하라.

7. 생각와 행동에 순결함을 유지하라. 창조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의 언약안에 충실하라. 아니면 새로운 언약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순결을 지키는 독신으로 살라.
8.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훈련하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긍휼함을 갖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지원하라.
9. 큰 값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추구하고, 도전이 들어올때에 진리를 방어하라. 진리가 선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10. 부러움, 욕심, 얻는것을 저항하라.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만족하는 영을 심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올려지는 완벽한 역사를 보았다. 그의 거룩한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수 없는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날을 바라본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서 그 곳으로 삶의 길을 인도하실때, 풍성한 기쁨이 가득한 임재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욱 더 깊은 친밀함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 ECO (개혁주의장로교) 에서 보는 신앙고백서는 다른 장로교와 마찬가지로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 스코트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스위스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트 소요리문답, 바르멘 신학선언, 1967년도 신앙고백과 간추린 신앙고백 총 11개 입니다.